

전남권 국립의대 ‘부지 확보’ 막판 변수

목포대 “요건 미충족” 소송·집행정지 신청
정부기획단, 순천대에 관련 추가자료 요구
교육부 ‘심사중단’ 검토…목포시장 오늘 회견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 대학인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계획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의 요구에 따라 순천시가 순천대 의대 예정 부지의 소유 현황을 추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데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순천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 대설립기획단은 순천대와 특별시에 제출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획단은 순천대 의대 예정 부지의 소유 현황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해당 부지의 사유지와 사유지 등을 구분한 현황을 확인, 특별시에 전달했고 특별시는 기획단에 제출했다. 순천대는 후보대학 평가 당시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확보계획과 관련해 순천시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자료에 포함시켰다. 후보대학 선정 이후인 지난달 31일에는 순천시의 부지 제공 협약 자료를 교육부에 추가로 냈다. 순천대 관계자는 “사업계획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며 “부지 관련 자료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지 확보 문제는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별시는 지난달 30일 목포대와 순천대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평가해 순천대를 최종 후보대학으로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점 차이를 보였다. 평가에는 의대 설립 추진체계와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계획 등이 포함됐으며 부지 확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평가 당시 제시한 부지 확보계획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민행배 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단순히 평가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전제가 되는 부지 확보계획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전 교육부 장관을 만나 목포대가 제기한 소송 등을 이유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성휘 목포시장 등은 9일 오전 10시30분 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 추석을 2주일이 앞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망월시립묘지에서 관계자들이 벌초 작업에 분주하다. /조영권 기자

閱시장 ‘국립의대·의료 인프라 확충’ 직접 챙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설립과 공공·필수의료 인프라확충 등 주요 의료 현안을민행배 시장이 직접 챙기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보안했다. ▶관련기사3면 또 동부청사를 관할하는 산업경제부시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의회가 요구해온 조직·기능 조정안도 일부 추가 반영했다. 8일 전남광주특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전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장 직속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신설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국가직 전환
의회 요구 추가 반영…11일 처리 ‘주목’

최종 조직개편안은 분청 조직을 40개 실·본부·국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7월 통합 특별시 출범 당시보다 5개 늘어난 규모다. 하부 과·담당관급 조직도 139개에서 148개로 확대됐다. 특히 동부청사는 기존 12개에서 23개로 11개가 늘어난 반면 광주청사와 무안청사는 각각 1개씩 줄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직속 지역보건의

료혁신본부 신설이다.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는 공공·필수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의료 취약지역 지원,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등을 맡는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별도의 의료 전담본부가 없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종안에 추가됐다. 최근 순천대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된 이후 서부권 의료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시장 직속 조직을 통해 관련 정책의 조정·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시장 4명의 국가직·지방직 배분도 조정됐다.

애초 행정문화·균형발전부시장을 국가직, 기본사회·산업경제부시장을 지방직으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안에서는 행정문화·산업경제부시장을 국가직, 균형발전·시민주권부시장을 지방직으로 변경했다.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두고 제시한 요구사항도 최종안에 일부 추가 반영됐다. 의회 요구사항 32건 가운데 19건이 반영되고 13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요 반영 사항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동부청사 배치, 도시계획 기능의 무안청사 분산, 기후환경본부 내 자연생태과 신설, 재정 전담팀 설치, 기업도시담당관 존치·확대 등이다. 조직개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 수능 지원자 3만1천704명
N수생 6.3% 증가

오는 11월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전남광주에서 3만1천70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재학생 지원자는 1천428명 줄어든 반면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과정 개편의 영향으로 N수생은 6.3%나 증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8일 “전남광주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남광주 전체 시험지구에 3만1천7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남광주 전체 지원자보다 979명(3.0%) 줄어든 수치다. 재학생은 2만3천365명(73.8%)으로 전년보다 1천428명 줄었으며, 졸업생은 6천989명(22.0%)으로 6.3%(412명) 증가했다.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도 1천329명(4.2%)으로 전년보다 37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1만5천984명(50.3%), 여자 1만5천770명(49.7%)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년 수능의 경우 항공과제 피아프로 재학생이 많았던 것과 달리, 2027학년도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 체제여서 졸업생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선택 영역별 지원은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 2만5천370명(80.0%), ‘언어와매체’ 5천900명(18.6%) 순이다. 수학은 ‘확률과통계’ 1만7천306명(54.6%), ‘미적분’ 1만1천584명(36.5%), ‘기하’ 907명(2.9%) 순이다. 영어는 3만721명(96.9%)이 선택했으며,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983명(3.1%)이다. 계열과 관계없이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과학탐구는 사회탐구만 선택한 지원자가 1만8천152명(57.3%)이었으며, 과학탐구만 응시한 지원자는 7천07명(22.2%)이었다. 사회탐구 1개, 과학탐구 1개 과목 조합으로 선택한 지원자는 4천400명(14.1%)이었으며, 직탐탐구 선택 학생은 228명(0.7%)이었다. 한편, 전국 수능 응시자는 총 5만1천864명으로 전년 5만4천174명보다 2천310명 줄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6천506명(4.4%) 줄면서 전체적인 감소를 이끈 반면, N수생(졸업생·검정고시생)은 19만6천473명으로 전년 18만2천277명보다 1만4천명 가량 증가하며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붕괴 위험’ 옛산동굴 철거수순 밝나	6면
GGM 하반기 30여명 공개채용	13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은암미술관	14면

제18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접수마감
10.14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인회 접수 인정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품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 x 14" (장정불요)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빌딩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수 4점 이내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접수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도착분
심사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1시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심사발표 2026년 10월 22일(목)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http://www.kjphoto.or.kr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http://www.kjdaily.com
심사일시 2026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예정)
심사장소 빛고을시민회관 4층 다목적실(예정)/광주매일신문 본사

심사 내역

-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 입선(출품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특별(학생) 부문
 - 대상(1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메달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메달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패

*초대작가: 합산 15점 이상 인자(대상 6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5점, 특선 4점, 입선 2점)는 본 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추대한다.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자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을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o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야 함.
초대작가 작품 e-mail 제출 (ckj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